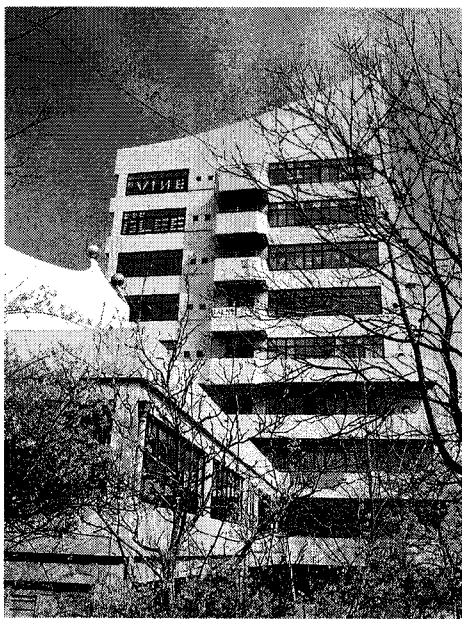


□ 학내 동아리 변천사



□ 우리학교 학생운동 돌아보기

빠른 문제인식으로 사회변혁 주도했던 학생들

우리학교 학생운동의 흐름을 뒤돌아 본다.
학생운동이 기본적인 골격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75년 전후로 보여진다. 75년 이전의 학생운동은 주로 학회의 성격 을 띠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은 자유민주적인 합법공간이었고, 정치적 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상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75년 민청 연사건을 겪으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치 적인 발언은 전면 금지되었고, 정치색을 결성이나 정치세미나도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적인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학생운동은 비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학교도 공개적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주로 기독교 씨름(KHC 등) 중심 으로 지하씨름이 결성되었다. 토론이나 유인물 제작, 야화활동 등도 시 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최낙범(공대 79)씨는 '76, 77년에는 활동이 미흡했고, 주로 진보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작이었 다. 그나마 자료도 크게 부족하여 공부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상한



▲ 학생운동 앞에 항상 국가보안법의 서슬퍼런 칼날이 버티고 있었다

다. 79년에는 학생층의 단발적인 활동만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노동자·대중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10.26의 시발점이 되었던 YH사건 같은 경우, 당시 신민당 탄압과 더불어 전개된 대정부 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우리학교 학생들이었다.

80년대 초반의 상황, 예를 들어 5.18 광주민주 항쟁 이후의 치열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학교라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80년대 중반부터는 학생 대중 조직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기존의 이념씨름중심, 비공개조직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대중화된 조직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7년 6·10 항쟁 이후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한다.

한편, 학생 권익보호와 학원민주화 투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합강의동 건설은 이미 이 당시부터 제기된 주장이었다. 특히 모든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대중제 등을 통한 공연사업도 전개되면서 그간 학생운동으로부터 다소 소외되어 있던 체 대나 음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90년대부터는 학생운동이 학우들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문제점을 인식, 간부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 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사회·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재단·학원 전체의 비민주적인 부분의 개혁, 수업·교육의 질 향상, 학우들의 복지 등도 고려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예로 92년 학교 앞 식 당들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가격으로 밥값을 일제히 인상하였을 때 학생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가격을 재조정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지금의 학생운동은 정작 그 주체인 학생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다. 93년 한총련 1기가 출범할 당시의 '기본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한총련'이란 취지는 많이 퇴색된 듯 하다. 그간의 학생운동은 지나치게 거 대화된 정치세력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러 학생운동조직들의 형성도 한 번쯤은 기대 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최용섭 기자)

동아리, 시대상 반영하는 문화공동체

주 우 진
(동아리 연합회장)

대학은 학문의 상아탑이자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 표현공간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표현은 특정 단체들의 성과물인데 그 가운데 동아리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리가 현재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전에는 Circle(씨클)이라 불리웠다. 그렇게 그 시기시 가마다 불리우는 이름도 달랐으며 그 역할과 성쇠도 변화 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 연 동아리가 대학 내에서 어떻게 변화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50·60년대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비판의식을 허용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의 동아리들은 그저 봉사과 친목도모의 형태로서만 존립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의 역사는 길게는 약 1백년 정도이다. 하지만 군국주의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치른 후 대학의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우리 경희대학교도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개교하였다. 현재 역사가 있다고 평가되는 대학들 가운데서 50년 전후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가 많은 것은 이런 연유가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그 50년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따른 동아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자.

우선 50-60년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짧은 광복기를 거쳐 6·25전쟁을 치르면서 폐쇄적인 나라를 추스리는 시기였다. 그 시기의 많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학은 이후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당시 대학동아리는 봉사동아리와 국제 연합 동아리가 중심이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비판의식을 허용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의 동아리들은 그저 봉사와 친목도모의 형태로서만 존립하였다. 우리 학교를 보면 역사가 약 20-40년 정도 되는 봉사 동아리가 여럿 존재하는데, 상록, 백록, VINE, 적십자, UNSA(UN학생

회) 등 봉사동아리의 태반이 당시 생겨난 동아리들이다. 또한 종교 동아리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종교동아리들 역시 그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카톨릭 학생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을 실시하는 등 권력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이론을 갖추고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그 선두에는 학생회와 학술 동아리 등이 있었다. 당시 생긴 동아리로 철학 연구

회나 한국역사 연구회 등은 학술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들도 이 시대의 특징적 흐름이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학술적인 바탕이 빈약하여 당시에 생겼던 학술 동아리가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타 대학을 보면 10-20년 된 학술 동아리가 많이 남아 있다. 흔히 '운동권 동아리'라 불리는 동아리들이 바로 이것들이다. 80년대에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의 등장으로 70년대의 비민주적인 역사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동아리는 나라와 역사에 대한 고민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선두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지금도 민주화를 앞당긴 세력으로 학생들을 꼽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동아리는 앞서 말한대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88올림픽을 치르고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밖으로 돌려졌다. 62년부터 계속된 산업화 시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점점 다양해졌다. 대학 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는데 취미나 교양, 사회 스포츠 동아리와 영어 동아리 등이 이때 생긴 대표적인 동아리이다. 90년대를 맞이하는 대학은 이제 생활 공동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동아리들도 점점 다양해져 갔다. 더군다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고, 세계화가 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하는 말이 된 지금에 있어서 영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그 수도 많이 늘었다.

Rock을 하는 동아리들의 활성화도 이 시대의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그리하여 동아리는 운동권 위주가 아니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 의미가 재평가되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컴퓨터동아리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 동아리도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사회체육 동아리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그 지리는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동아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타 학생회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띠며 나름대로의 발전을 해왔다. 끈끈한 선배와의 정이나 동아리 창립제 등은 동아리 활동을 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양태로 변천되어 온 동아리는 현재에 있어서도 대학문화의 창조기로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타 대학과 비교를 해 볼 때 경희대학교의 동아리 문화가 뒤쳐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학의 구조조정이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자치권 탄압이 대학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경희대 내에서는 자치권을 찾아 내겠다는 새로운 단위 부문운동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의 문화를 일궈나갈 대학 내의 동아리들은 학내에서 그 역할을 재평가하고 권리와 책임을 의식하여 명실공히 대학 문화의 창조자로서 다시 자리매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태·국제법무·행정대학원

199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요강

아태국제대학원

- 1. 모집학과**
국제통상정책학과, 국제경영학과, 지역학과(중남미)
- 2. 전형방법 및 일시**
가. 필기시험: 국문논술, 영문논술
나. 필기시험 일시 및 면접장소: 1998년 5월 23일(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도서관 4층)
다. 면접: 국·영문논술 필기시험후 국·영어로 면접
- 3. 지원자격**
가. 국내의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졸업자 및 1998년 8월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1998년 5월 4일 ~ 1998년 5월 20일
나. 원서접수: 1998년 5월 14일 ~ 1998년 5월 20일
- 5. 접수장소**
가. 서울캠퍼스 본관 1층 아태국제대학원 입시접수처(우편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버스 134, 720번,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하차)
나.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교학부(중앙도서관 4층)
☎(0331)201-2146~9
- 6. 문의처**
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0331)201-2146~9
나. 본 모집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 전리안 go khus → 11. 입학안내와 61. 학교계시판
· 하이텔 go khus → 21. 입학안내/입시정보와 31. 개학만 경희대 소식,
· 인터넷 www.kyunghee.ac.kr의 아태국제대학원
98후기신입생모집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나. 전형일: 1998. 6. 27(토) 14:00
다. 합격자 발표: 1998. 6. 29(월) 14:00
라. 합격증교부 및 등록: 1998. 6. 29(월) ~ 1998. 7. 10(금)
※ 일반전형은 1998년 6월 13일(토) 실시예정임
-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다. 사진 3매(입학원서 붙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과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961-0904, 0905 팩스 961-9134

행정대학원

- 1.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석사과정(00명)
1)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행정관리전공
2)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북한연구전공
3) 의료행정학과: 간호행정전공, 병원행정전공, 보건행정전공
4) 도시행정학과: 도시행정전공, 지방자치전공
5) 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전공
6)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7) 관광정책학과: 관광정책전공
8) 국토개발정책학과: 국토개발정책전공
나. 최고정책과정 및 의회지도자과정(00명)
1) 최고정책과정
2) 의회지도자과정
- 2. 원서교부: 1998년 5월 11(월) ~ 5월 22(금)**
- 3. 원서접수: 1998년 5월 18(월) ~ 5월 22(금)**
- 4. 시험일시 및 장소: 1998년 5월 30(일) 14:00 본대학원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서류전형, 면접, 구술고사
나. 최고 정책과정 및 의회지도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6. 제출서류: 주민등록증(초)본 1부, 최종학교졸업(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해당자),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X4 - 4매)**
- 7. 특전 및 장학금**
가. 공무원, 공기업체간부, 본교졸업생, 군인은 수업료 20% 감면
나. 사회복지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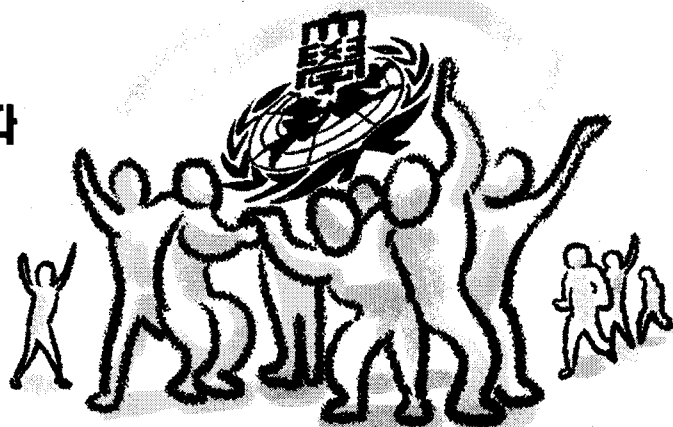
국제법무대학원

- 1. 모집학과 및 인원**
국제법무지도자과정(야간) (00명)
- 2. 지원자격**
공·사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 및 유관기관의 간부, 군인, 각급사관제 임원, 중·소기업체 대표 및 각종 지도자(학력제한 없음)
-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4.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5. 4(월) ~ 6. 19(금)

아태·국제법무·행정대학원

1999년 개교50주년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경희가족 모두, 내가 먼저!
개교50주년, 우리가 빛내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개교50주년(1999년)을 맞이하는 경희대학교는 역동의 시대에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자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앞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고 경희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경희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단체참여자: 동아리별 / 학과별 / 고교동문회별 / 기타 개별참여자: 재학생 및 휴학생, 동문, 학부모 등
활동내역	안내, 의견, 행사진행, 명예봉사, 홍보예술포스터, 통역 등
신청안내/접수	신청서(소정양식)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각 단과대학 교무과에 비치
신청기한	1998. 5. 30 까지
활동기간	1998. 6 ~ 1999. 5 기간 중 정기적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 사회봉사 학점인정 예정 ·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 961-0931~2 Fax : 961-0906